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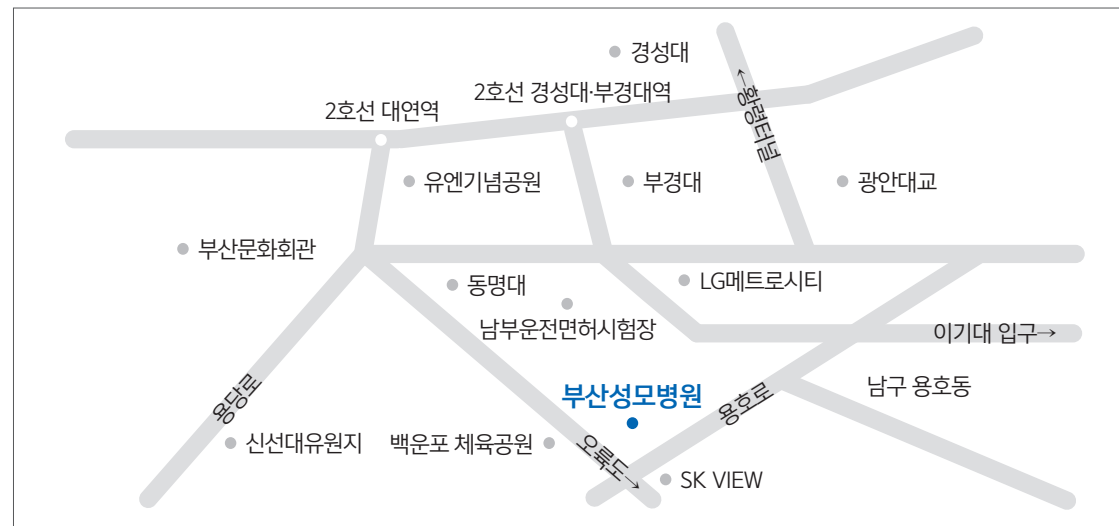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진료시간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
오후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	-

※ 가정형 호스피스 진료는 비뇨기과로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가정형 호스피스 상담 T 051)933-7969
- 완화의료센터 입원 상담 T 051)933-7133
- 완화의료센터 입원 진료예약 T 051)933-7777

찾아오시는 길



- 서면방면 20, 24번
- 부산역방면 22, 27번
- 동래방면 131번
- 해운대방면 39번
- 마을버스 남구2, 2-1, 8번
- 부산성모병원 정류소 하차(셔틀버스 운행)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T 051)933-7133 F 051)932-8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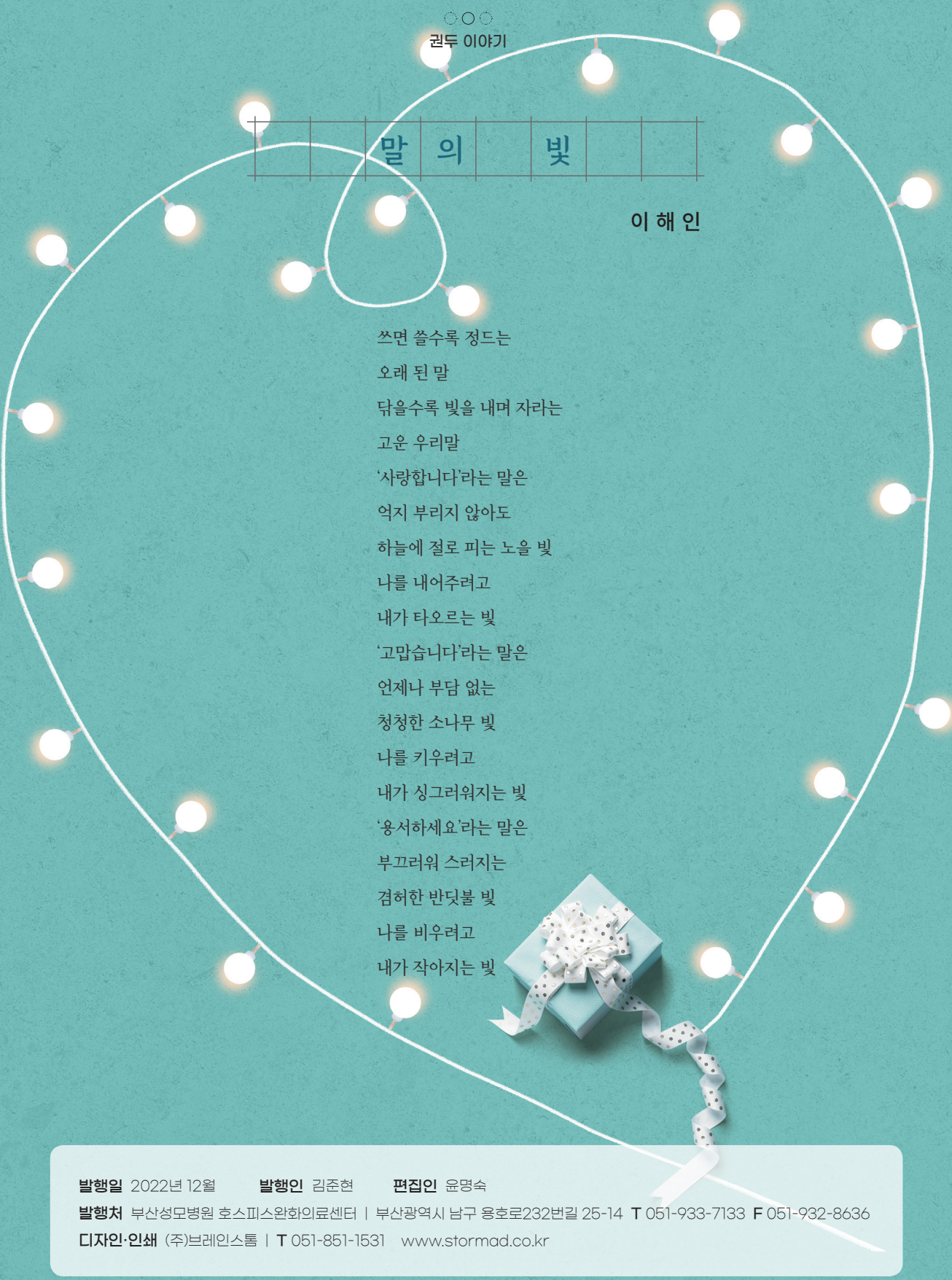
www.bsm.or.kr



2022년 VOL.21



부산가톨릭의료원
BUSAN ST. MARY'S HOSPITAL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인 김준현 편집인 윤명숙
발행처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T 051-933-7133 F 051-932-8636
디자인·인쇄 (주)브레인스토름 | T 051-851-1531 www.stormad.co.kr

CONTENTS

동행 2022년 · VOL. 21호

권두 이야기

02

말의 빛 / 이해인

우리들의 이야기

04

봉사활동과 나는 / 정인창
유재라 상을 받으면서 / 김영희
소중한 것들 / 홍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09

후원회 가입안내

14

이용안내

15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진료시간표 16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무엇인가?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 및 통증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습니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이루어진 완화의료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봉사활동과 나는?



정인창 (스테파노)
봉사자

“정형은 아직도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자원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서울 및 내 주변에 있는 친구나 지인들의 전화통화에서 종종 듣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한다고 답하곤 합니다.

그리고보니 봉사활동을 한지도 2005년11월부터 현재까지 만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친구나 지인들도 처음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두겠지하는 마음이었을 터인데 지금까지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 밖 대견함과 자기들이 봉사활동을 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등이 내포된 말일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나와 봉사활동은 진작부터 정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결혼 상대자와 첫 만남에서도 나는 회사 은퇴 후에 남쪽 가난한 섬(그 당시에는 전기도 없었음)에서 봉사활동을 할 텐데 같이할 수 있겠냐고 물어 볼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 꿈은 회사 은퇴 후, 악성종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통증과 싸우는 암 환우들을 위한 봉사 활동으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당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성모병원과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기 활동시에는 서툴고 두려움도 느끼게 사실이지만 점차 활동에 대한 교육 및 회의를 통하여 자신감과 사명감을 깨달으면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계속 진행하면서 나의 행동과 마음가짐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된 것도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병원 봉사활동에만 신경을 썼지만 점차 일반 사람들에게도 나 나름대로 적지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울산에서 성모병원까지는 평균 2시간 30분이 소요되는데 차편은 시외버스, 지하철과 시내버스입니다. 그러다보니 노인들, 아낙네, 어린아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도 벌어지고, 자연스럽게 딱한 사람들을 위한 화살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일련의 행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늘 생각하고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목욕 봉사를 할 때에도 목욕실로 안내되어 온 환우를 보면서 “저 환우가 나라면” 이란 생각을 하게 되고,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하자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다 벗은 상태에서 따뜻한 물이 몸에 닿으면 알게 모르게 누구나 차분해지고 안정을 찾게 되는 것 같더군요.

세상 일이 다 그렇겠지만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욕봉사를 예를 들면 머리를 감기는 일, 면도하는 일에서 내 생각대로 보다는 환우가 원하는 안전하고 시원하게 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자신이 매일매일 꾸준히 머리감기와 면도를 해 보면서 잘 할수 있는 노하우를 찾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금요일이 나에게는 말 그대로 금쪽같은 날입니다.

왕복 5시간을 차속에서 시달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오랫동안 원했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 생각이나 몸은 늘 밝고 튼튼하다는 것을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훌륭하신 봉사자분들과 관계자 모든 분들이 함께하는 시간과 활동은 더욱더 아름답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건 흘러가겠지만 봉사하는 정신과 행동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봉사활동과 나는 사랑을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 유재라 상을 받으면서...



김영희 (루시아)
봉사자

저는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 봉사자 김영희 루시아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몸이 허약하였고 성격도 조금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자신감도 없었으나 막내 동생은 성격도 쾌활하고 건강 했는데 그 동생이 일곱 살에 질병으로 갑자기 하늘나라로 갔고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톨릭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고 천주교에 입교를 하여 루시아 라는 세례명을 받게 되었으며 혹시 건강이 주어진다면 환우들을 돌보고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까지 투병을 하게 되었는데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었을 때 문득 세례 때 가졌던 생각이 떠올라 단 몇 년이라도 죽기 전에 환우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실천하기로 마음 먹고 이웃에 있는 환우들에게 가정 방문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부산 메리놀 병원에서 호스피스 교육이 있어서 받게 되었습니다. 수녀님께서 봉사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고 권유했지만 성격이 내성적이기에 섣불리 결정은 못하고 가정 방문 하고 있는데 라고 했는데 수녀님이 용기를 주셔서 병원, 가정을 연계해서 봉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본당에서는 연도회 봉사를 하고 있었구요.

그 때 기억에 남는 가정을 한 분 소개 할까 합니다.
38세 된 젊은 자매가 백혈병으로 투병 가족은 중1, 초5. 딸과 남편 네 식구인데 집으로 방문 할 때는 아이들 반찬도 좀 만들어서 가지고 갔고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으로 방문하여 기도로 해 주고 아이들에 대한 걱정들, 남편이 안정적이 아닌 (건설노무자) 직업이어서 경제적인 상황 등 많은 하소연을 하면 들어주는 역할과 아이들 반찬 등을 갖다 주며 함께 약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 병세가 악화되었고 환자가 아이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이제 병원에 안 가겠다고 하여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걱정이 되었지만 차마 꺼내기가 어려워 망설이고 있는데 마음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저 젊은 자매를 장의사 하는 형제들이 와서 하는 건 가족들에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남편을 만나자고 하여 슬며시 사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고 했더니 걱정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아직 너무 어리고 하나까 제가 도와 줄 수 있다 했더니 너무 고마워하면서 쾌히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입관을 하는 것은 두려웠지만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이 고운 손으로 목욕 시켜서 이쁜 모습으로 아이들의 기억에 남도록 해 주고 싶다고 감히 청했습니다. 그 후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임종을 하게 되었고 집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자매님 소원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장례팀이 함께 가서 입관도 하고 장지수행까지 하면서 가족들도 감사해 했지만 저 또한 능력을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했고 크나큰 체험도 하게 되어 지금까지 호스피스 전 과정을 잘 마친 케이스가 되었으며 용기도 갖게 되어 소극적인 성격이지만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사별가족도 아이들이 어려서 3, 4년 가까이 함께하였습니다.

가족들도 지금 그 어려움을 잘 딛고 편안하게 살고 있으며 저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평생 이 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건강도 축복해 주셔서 만나는 많은 환우들에게 하느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별가족들도 계속 만나면서 비록 저는 작고 보잘 것 없지만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보고 체험하게 되었으며 많은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항상 아프기만 하였던 기억들은 없어지고 열심히 봉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께 무한한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환우들, 지금은 고인이 되어 하늘나라에 계신 영혼들과 다양한 사별가족들을 만나면서 하느님의 섭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번에 유한양행에서 유재라상을 많은 봉사자들을 대표해서 부족한 저에게 주셔서 하느님과 그동안 만났던 모든 가족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또한 저는 일생에 이렇게 큰돈을 가진 적이 없었기에 더욱 더 감사했고 벅찬 마음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운 단체, 개인들에게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느님께 너무 너무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음을 열어 주신 고인이 되신 영혼들과 사별 가족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천국에서 고인들도 기뻐하며 하느님께 찬미를 드릴 것입니다.



소중한 것들

홍지원
호스피스전공 대학원생

저는 이번 통증 및 증상완화 실습을 시작하게 되면서 2019년도 부산대병원에서 받은 호스피스 표준교육 실습 때 환자분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해보거나 이야기를 해 보지 못했던 관계로 임종을 앞둔 환자분들과의 직접적인 대화는 어떨지 약간의 기대감과 두려움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주로 신체활동 지수가 낮거나 전신상태의 평가 점수가 높아 섬망, 통증, 부동, 의식저하, 호흡곤란이 심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주로 보호자 분께 여쭙어야 보호자가 관찰하신 환자의 증상이나 완화요구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식저하가 심하지 않으셨던 환자분들과는 본인의 이야기나 가족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말을 지속적으로 하시다보니 곧 수분 내에 숨이 차거나 기면상태로 빠지는 경우도 많아 긴 시간 대화를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 9년 정도 요양병원 중증병동에서 임종을 앞두신 많은 고령 환자를 모셨고, 약 3년 정도 지역사회에 계신 말기 암 환자분들의 가정방문을 다니면서 환자나 보호자와의 대화가 늘 쉽지 많은 않았지만 나름대로 긴 시간을 가지고 공감대를 가지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면 대상자의 심리, 사회, 영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라포 형성을 잘 이루어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5일 동안이라는 짧은 호스피스 병동 실습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 드리지 못한듯하여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요법으로 캘리그래피를 하었는데 강사님께서 가져오신 샘플들을 보니 종이에 붓펜으로 글 몇자 적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냐는 생각이 들고, 대충 따라 적으면 쉽게 적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분과 같이 앉아 함께 설명을 들으며 가르쳐 주시는 대로 10글자 내외의 글귀를 보고 연습 삼아 따라 적어보았는데 생각보다 붓펜을 다룰 때의 힘의 강도조절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평소에 이런 글을 아무 의미 없이 따라 적는다면 굉장히 시시한 일이겠지만 샘플을 보고 따라 적을 때 옆의 보호자의 마음으로 집중을 해보니 앞에 놓여진 아름다운 글귀들 한글자 한글자가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내가 여기 보호자들처럼 죽음을 앞둔 이의 가족이라면 여러 가지 회한들과 인생의 역정적인 순간들...후회스럽고 미안했고 고마웠던 그 순간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추억의 한 조각들이 파도처럼 가슴을 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햇살같은 그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글을 적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이 무엇인지, 그동안 함께 견디고 살아왔던 인생의 여정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을 매길 수 없는 일들이었는지 저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된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의 이모저모

집밥데이, 영양식 데이, 가래떡 데이



환우 대세, 병자성사, 병동미사 외



생신축하



가족교육



10월 완화의료주간 호스피스 날 행사



프로그램 현장



가정형호스피스

돌봄키트 제공

가정호스피스 첫 방문 시,
환자간호에 필요한 물품과 돌봄지침서 전달



복날 이벤트

초복인 7월 16일 주간에 환자와 보호자가 복국을 드실 수 있도록 초원복국에서 미리 주문한 것을 찾아서 전달하였다.



사별가족 만남

사별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슬픔을 위로하고
정서적, 영적지지 제공



소진관리

바쁜 업무 중에 서로 만나 대화할 시간이 부족한
가정호스피스 담당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담소를 나누며 업무에 대한 소진감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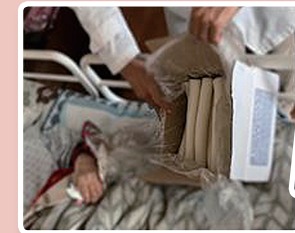
추석선물

투병과 코로나 감염걱정으로 친척들 방문도
여의치 않은 환자들에게 추석의 기쁨을 드림



빼빼로데이 가래떡데이

11월 11일 주간에 방문을 가는 가정들에 그날
배달받은 따뜻한 가래떡 한 박스와 꿀, 빼빼로,
떡을 싸먹을 때 맛있는 김을 드렸다.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후원회 가입안내

호스피스 후원회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사무실의 Fax, 전화,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스피스 후원회원에게는 호스피스 소식지를 발송해 드리며,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 후원기금 참여 신청서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연락처	

※ 부산가톨릭의료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후원하시는 모든 기부자분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는 기부약정의 효력으로 영구 보관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동의 서명: _____

금액: 일금	원(₩)
<input type="checkbox"/> 일시기부:	
<input type="checkbox"/> 정기기부: 매월 원 회(년)	
※ 납부안내: <input type="checkbox"/> 무통장 입금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CMS)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주:	
- 은행명:	
- 계좌번호:	
- 동의서명:	

※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 후원기금은 소정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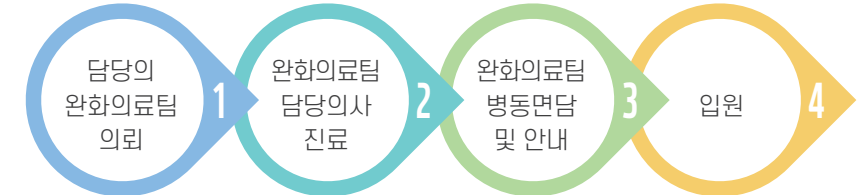
부산성모병원 완화의료센터에서 펼치는 말기 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가톨릭 의료기관의 이념 실천 사업을 지지하며 위와 같이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약정인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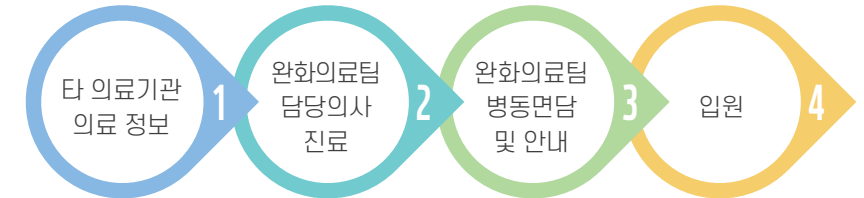
신청서 보내주실 곳 48575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부산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후원회 관련 문의사항 Tel 051)933-7137 Fax 051)932-8636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이용안내

본원 입원 환자



타 기관 환자



- ※ 구비서류 ①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1개월 이내)
② 최근 검사자료(CD 및 영상 판독지, 조직검사 결과지)
③ 현재 복용중인 약 처방전
④ 의무기록사본 등

진료시간 및 진료과 안내

- 예약 진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 진료예약: 051)933-7777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2시(일요일, 공휴일은 휴진)
- 입원형 호스피스: 혈액종양내과 진료 051)933-7253
- 가정형 호스피스: 비뇨의학과 진료 051)933-7861

진료상담 및 문의

- 입원형: 051)933-7133
- 가정형: 051)933-7969
- FAX: 051)932-8636